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유율법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영생 이루어져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 육적인 말을 할까요, 영적인 말을 할까요? 영적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인간 조희성이기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인간 조희성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구원론을 논할 수 있으며, 선악과가 바로 나라는 의식이라는 걸 논할 수 있으며, 또한 원소 속에 있는 중성자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찌 인간 조희성이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조희성도 그 순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 인간 조희성은 그런 차원 높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요, 영적 무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답답하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산소(묘)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들은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산소 속에 있는 송장하고 살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신경이 연결 돼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그 조상들의 영이 바로 나라는 주체의의식이요, 영적 무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조상님들의 영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현재 무

덤 속에 있는 조상들의 영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분명히 이 사람은 산에 있는 산소를 논한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무덤을 논한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 영적 무덤을 제거해야 영생이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석방 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의식이 마귀의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의식이 바로 영적 무덤이고로 이 영적 무덤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자존심이 없어야

나라는 의식이 바로 자존심이요, 자존심에 속한 것이 바로 고집이고로 고집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연단 받을 때 아들 뺄 되는 20대 청년이 이거 하라 하면 "네." 하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라 하면 "네." 하고 저거를 했다고 했는데 자존심이 없으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어린이가 뭐라고 그래도 "네." 하고 복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고 영적 무덤이 되는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변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성령이라는 건 자존심을 죽이는 은혜지, 그 이슬성신이 무슨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변화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야 성



구세주 조희성님

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나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지 나를 이기지 않으면, 자존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야 그 때부터 영이 자란다

구원의 자격,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람을 찢러냈는데 자존심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젊은 청년이 이 사람을 그냥 이유도 없이 귀싸대기를 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맞아도 섭섭한 생각도 없고, 그렇게 맞아도 화도 안 나고, 그렇게 맞아도 신경질도 안 났던 것은 나라고 하는 자존심 마귀가 없어서 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입이 한 다섯 발 나오는 건, 아직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수십 년간 마귀 소리를 듣게 했고, 이유 없이 때를 맞게 했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

운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꿈쩍 못하고 야코(뜻대의 속된 말)가 죽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이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몸이 굵어도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췌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운이 세다고 해서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췌 사람이 때를 맞고도 가만히 있는 건 자존심 마귀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피가 썩고 늙어

그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때부터 때려도 화가 안 나고, 욕을 해도 화가 안 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섭섭한 생각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 때부터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영이 자라기 시작해서 그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자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을 때 그 때부터 이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 하는 것이지, 자존심이 있으면 개풍이 있는 것으로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섭섭한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고, 욕을 먹어도 섭섭한 마음이 안 나오고, 때를 맞아도 노여워하는 마음이 안 나와야 그게 바로 인간의 기분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피가 썩고 사람이 늙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은 순종의 법

승리제단은 자유율법을 지키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유율법이라는 건 무슨 법하고 같다고 했다면 군법과 같다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유율법이라는 건 순종의 법이고로 온전히 내 마음과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해야 되고, 걸어가 때도 하나님이 걸어가 줘야 되고,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생각을 해 줘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간단하게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생각도 하나님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 성경이나 불경을 바로 풀어주는 주인공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던 껍데기를 벗어야

나라는 주체의의식이 바로 마귀이고

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죄요, 자기가 걸어가는 것도 죄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도 죄요, 자기가 밥을 먹어도 죄요, 자기가 호흡을 해도 죄요, 자기가 잠을 자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생활하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그 때부터 그 사람의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때부터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자랄 때 마귀가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송곳으로 자꾸 찌르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은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고비를 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고로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그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씨름을 하려니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경지의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서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긴자가 되고 영생을 하는 것이지,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그 위대성이라는 건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지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단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992년 3월 6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제 39 회 이슬성신절

2부 경축예배 하이라이트



1 새해 첫날 이슬성신절은 새하늘과 새땅을 여는 의미가 있다. 박철수 승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이 되자고 말했다



2 대구제단의 거인 라준경 승사 / 요년에는 장구치며 노래했다



3 앵글로 재탄생한 보광패션 워십댄스(Worship Dance)



4 마산제단 김진규(좌끝) 승사는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를 무난히 마쳐서 감사하다고 했다



5 부산제단 김원찬 책임승사의 하모니카 연주 / LED 빛이 음에 맞춰 반짝여 연주 깊어 더해졌다



6 무궁화환창단은 이슬성신절에는 화사한 한복을 입고 별도의 순서없이 관현악단과 협연했다



7 관현악의 연주에 흥겨워 구세주를 만난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식구들



8 무궁화관현악단의 지휘자 겸 음악총감독 김성우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휘하고 있다



9 메시아절 때 멋진 화음을 보여줘 이슬절에 앵콜로 다시 노래한 본부제단 남청총창